

『법구경』의 성립과 전승과정의 복잡성

김성옥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국문 초록

『법구경』은 가장 대표적인 불교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선별하여 따로 모았기 때문에 불교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다양한 사본들 가운데 『법구경』의 원형(original)을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전은 오랜 불교의 역사 속에서 성립되고,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언어로 유포되었다. 거기에 부파 분열이라는 불교 내부의 역사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빨리어 『담마빠다』, 산스크리트어 『다르마빠다』, 간다리 『다르마빠다』, 파르티어 『다르마빠다』, 그리고 『우다나바르가』에 이르기까지 『법구경』 인도어 버전의 형태들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한역 『법구경』과 동일 계통의 문헌으로 간주되는 『법구비유경』·『출요경』·『법집요송경』의 경우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법구경』의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경전의 한역 과정에서 최초의 5백 계송과 새로 얻은 13품 250여 송의 출처 등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가장 초기의', '가장 원형을 간직한' 형태를 확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듯하다.

현재 남아 있는 『법구경』의 형태는 경전의 성립과 전승 과정에서 때로는 같은 종류의 다른 계송이 추가되고, 때로는 생략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

과정에는 ‘불설(佛說, Buddhavacana)’에 대한 불교도의 유연한 태도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담마빠다』, 『다르마빠다』, 『우다나바르가』의 주요 버전과 단편들은 계송이나 품의 배열에서 명백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계통의 텍스트로 간주되어 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형의 형태를 확정할 수 없는 인도와 불교 텍스트의 고유한 특징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법구경, 담마빠다, 다르마빠다, 우다나바르가, 불설

I. 서론

『법구경(法句經)』은 가장 오래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운율이 있는 시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의 문장은 붓다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듯하고, 격언과도 같은 가르침은 출가지는 물론 재가자에게도 유익한 삶의 교훈을 제공한다.

빨리어로 『담마빠다』로 불리는 이 경전은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영어·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 등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으며, 그 번역의 열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¹⁾ 서양에서는 이 경전이 불교 경전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동양에서도 이 경전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수십여 종의 번역본이 나와 있으며, 빨리어 원전 번역이 출간되기도 하였다.²⁾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존의 수많은 번역본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새로운 번역본이 출간되는 까닭은 붓다의 말씀 그대로 『법구경』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1) 서양에서는 1855년 덴마크의 V. Fausböll이 빨리어 『담마빠다』를 라틴어로 처음 번역하였고, 1870년 Max Müller가 처음으로 영역하였다. 1914년 Sūriyagoḍa Sumaṅgala에 의해 PTS 편집본이 완성되었고, 1994년 O. von Hinüber와 K. R. Norman에 의해 새로운 PTS 편집본이 출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Norman은 1997년에 번역본 *The Word of the Doctrine(Dhammapada)*를 출간하게 된다. 이 밖에도 Radhakrishnan(1950), Kalupahana(1986), Carter & Paliawadana(2000)의 번역이 있다. 최근에는 Roebuck(2010)에 의해 *The Dhammapada*라는 이름으로 런던 펍킨 클래식스에서 다시 번역되기도 하였다.

2) 국내 빨리어 원전 번역으로는 일아(2014), 김서리(2013), 전재성(2008)의 번역이 있다.

『법구경』은 붓다의 설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려 뽑은 선집(選集, anthology)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붓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들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불교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다양한 언어의 판본들 가운데 『법구경』의 원본(original)을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전은 오랜 불교의 역사 속에서 성립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로 유포되었다. 현존하는 『법구경』이 여러 형태의 언어와 버전으로 남아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여기에 부파 분열이라는 불교 내부의 역사까지 얹혀 있다. 특히 4가지 한역본의 역출 과정을 기록한 『법구경』 서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 복잡성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동일한 원본의 번역인 것은 아니고, 서로 다른 저술이라 부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구경』이라는 동일 계통의 경전군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구경』의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가 다양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길어 올린 불교적 가르침의 정수임을 거듭 확인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경전의 성립과 전승과정의 복잡성을 살펴봄으로써, 대표적 불교경전으로 간주되는 『법구경』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지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II. 인도어 버전의 형태들

『법구경』은 팔리어로 『담마빠다(Dhammapada)』,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빠다(Dharmapada)』라고 부른다. ‘법(法)’으로 번역된 ‘담마/다르마’는 진리·가르침·법칙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구(句)’로 번역된 ‘빠다’는 말씀·문구 등의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이 경전의 이름은 붓다가 전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된다.

팔리어 『담마빠다』에는 26품 423개의 게송이 수록되어 있다. 남방 상좌부의 전통에서는 4부 니까야 이외에 쿿다까니까야(Khudaka-nikāya)를 더하였는데 그 가운데 『담마빠다』를 포함한 15개의 경전이 들어 있다.³⁾ 로벅(Roebuck)에 따르면 팔리어 『담마빠다』는 미얀마·태국·캄보디아 등 남아시아 언어만 해도 적어도 7개의 텍스트가 남

3) 藤田宏達 外 1992, 56-57.

아 있다. 몇몇 텍스트들은 중세 인도어로, 다른 것들은 다양한 공식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다. 중세 인도어로 된 것은 『담마빠다』 혹은 『다르마빠다』로 불린다. 후자 가운데 몇몇은 대부분 『우다나바르가(Udānavarga)』 혹은 『우다나(Udāna)』로 불린다.⁴⁾

우다나는 붓다의 감흥어린 말씀이란 의미에서 ‘감흥어(感興語)’, 혹은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교설하신 말씀이란 의미에서 ‘무문자설(無問自說)’이라고 한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사본이 중앙아시아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1965년 베른하르트(Bernhard)에 의해 교정본이 간행되었다. 일찍이 『우다나바르가』의 중요성에 주목한 니카무라 하지메(中村元)는 “이 책은 전문학자들 사이에서 수년간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두 가지 한역이 있고,⁵⁾ 티벳역도 전승될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산스크리트 사본이 다수 발견되어, 예전에는 널리 암송되었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마빠다』와 공통되는 시가 많지만, 문구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⁶⁾고 적고 있다.

얼핏 보아도 빨리어본 『담마빠다』, 산스크리트어본 『다르마빠다』, 그리고 『우다나바르가』에 이르기까지 『법구경』의 인도어 버전의 형태가 만만치 않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학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근 발견된 사본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는 로벅(Roebuck)의 논문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

1) 빨리 담마빠다

가장 오래된 사본은 기원후 1500년경으로 소급된다. 5세기 무렵 이 문헌의 주석서가 저술되던 당시에도 이 문헌은 거의 현재의 형태로 이미 존재했을 것이다. 편집자의 이름은 없다. 그 주석서를 때때로 붓다고사(Buddhagośa)의 저술로 귀속시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에게 귀속되는 작품과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⁸⁾

4) Roebuck 2011, 226.

5) 『출요경』과 『법집요송경』을 말한다.

6) 中村元 1984, 375.

7) Roebuck 2011, 227-230. 그는 ‘버전(ver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말이 하나의 고정된 원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의 논문에는 유럽의 번역자와 책의 이름까지 자체하게 언급하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만, 필자는 그 가운데 계승의 숫자와 쓰여진 언어 및 소속부파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일찍이 水野弘元(1990, 96)도 이 경전의 형태를 5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5가지는 1) 『우다나바르가』로 불리는 것, 2) 『마하바스투』에 인용된 것, 3) 파트나 『다르마빠다』, 4) 간다라 『다르마빠다』, 5) 빨리어 『담마빠다』 등이다.

8) 붓다고사는 『청정도론』, 율장 주석서, 4부 니까야 주석서의 서문에 자신이 저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법구경』 주석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 간다리 다르마빠다

두 개의 사본이 현존한다. 하나는 1890년대 중국령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호탄 다르마빠다(Khotan Dharmapada)'이다. 간단하게 '간다리 다르마빠다(Gāndhārī Dharmapada)'로 알려져 있다. 현재 파리와 페테르부르크에 나뉘어 있다. 현존하는 두 부분은 전체 작품의 약 8분의 5에 해당하고, 합쳐진다면 26품 550여 개의 계송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최근에 발견되어 영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런던 다르마빠다(London Dharmapada)'이다. 이것은 13계송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순서가 약간 다르긴 해도 호탄의 버전과 공통된다. 두 사본은 카로슈티 문자로 자작나무 껍질에 쓰여 있으며 그 시기는 아마도 기원후 1세기 무렵으로 소급될 것이다.

3) 간다리 다르마빠다 혹은 우다나바르가

마찬가지로 자작나무 껍질에 카로슈티어로 쓰여진 이 사본은 호탄 버전이나 런던 버전과는 다른 '간다리 다르마빠다'를 대표하는 듯하다. 87계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몇몇은 빨리 '담마빠다'와 공통되고, 몇몇은 산스크리트어 『우다나바르가』와 공통된다. 3개의 계송은 불교 문헌 어디에서도 분명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 단편은 다른 간다리 버전보다는 수바시(Subaṣī)에서 발견된 『우다나바르가』에 가깝다. 부파의 소속문제는 보다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우다나바르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아마도 설일체유부 학파의 하나에 속할 것이다.

4) 파트나 다르마빠다

1930년대 티베트의 사원에서 발견된 이 사본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모든 편집자들은 파트나(Patna)에 보존되었을 때 찍은 사진들을 통해 작업해왔다. 이것은 종종 '산스크리트어 혹은 불교혼성산스크리트어 다르마빠다'로 기술된다. 사본 자체는 11-12세기 상당히 후대의 것이며, 산스크리트어 요소의 몇몇은 중세인도어가 방언의 용법에서 떨어져 나온 후 필사자로부터 왔을 것이다. 22품 414송으로 되어 있으며, 정량부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독자부 전통에 속한다.

5) 불교혼성산스크리트 우다나바르가

오늘날 중국에 있는 쿠차의 동북쪽 수바시에서 발견된, 포플러 나무에 브라흐미 문자로 쓰여진 사본이다. 손상이 심하여 상태가 매우 불완전하다. 현재는 파리의 국립 도서관에 있다. 그 시기는 3-4세기 무렵으로 소급되며, 분명하게 불교혼성산스크리트의 비고전적인

형태이다. 33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00송 이상을 담고 있다.

6) 산스크리트 우다나바르가

보다 고전적인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우다나바르가도 있다. 다른 문헌들 속에도 인용되는, 다양한 사본과 수 백 개의 단편들로 대표된다. 이것은 33품 약 971 계송을 포함하고, 4세기 무렵 법구(Dharmatrāta, 法救)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8세기에 쓰여진 뿌라즈나바르만(Prajñāvarman, 慧鑿)의 주석서 『우다나바르가비바라나(Udānavargavivaraṇa)』가 있다. 이 텍스트는 중앙 아시아와 티벳에서 강력했던 설일체유부 학파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7) 마하바스투에서 인용되는 다르마빠다

불교혼성산스크리트어로 된 또 하나의 버전으로, 『마하바스투(Mahāvastu)』 인용문을 통해 알려졌다. 이것은 초기 대승불교의 대중부 가운데 한 부파인 설출세부 텍스트로 간주된다. 『마하바스투』는 붓다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다시 말한 것으로, 분명하게 『다르마빠다』로 설명되는 몇몇 계송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은 모두 산스크리트 『우다나바르가』와 상응하는 단일한 계송들이고, 빨리어 『담마빠다』에서도 발견되는 것들이다. 『담마빠다』의 「술천품(述千品, Sahassa Vagga)」에 상응하는 계송들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형태의 『마하바스투』는 시기를 확정짓기 어렵고, 1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거기에 인용된 계송들은 분명히 보다 오래되었을 것이다.

8) 그 밖의 다르마빠다

불교혼성산스크리트어로 짐작되는 또 다른 단편이 있다. 인연담과 함께, 『다르마빠다』의 대중부 버전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이 사본은 아프가니스탄 바미얀에서 왔을 것이다. 그 계송은 분명히 『마하바스투』에 인용된 어떤 계송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원래 텍스트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상 8가지 버전의 형태 이외에도 로벅은 중국령 투르크িস탄에서 토하라(Tokhara) 말로 번역된 『우다나바르가』의 작은 단편들도 소개하고 있다. 이 언어는 분명히 인도 유럽어의 한 지류이며, 종종 산스크리트어와 나란히 쓰여 있다.

『다르마빠다』와 『우다나바르가』가 지닌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저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견해인 듯하다. 각 품의 제목이 연상

시키는 주제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품의 제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하게 보일 때조차 그 순서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특정 계송이 항상 상응하는 품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다양한 언어의 갖가지 형태로 전해진 『담마빠다』, 『다르마빠다』, 『우다나바르가』 가운데 ‘가장 초기의’ 혹은 ‘가장 원형을 간직한’ 형태를 확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듯 보인다. 로벅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중세인도어 버전들이 산스크리트어 버전들보다 조금 빠르거나 덜 정교하게 표현되는 것 같다는 정도”⁹⁾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이들 문헌에 실려 있는 계송들은 초기 부파불교의 다양한 분열 이전에 이미 존재했을 것이다. 부파불교의 전개와 함께 이 경전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계송이 때로는 추가되고 때로는 생략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 당시의 불교 문헌이나 구전되어 온 전승 가운데 여기저기에 산재하던 최소 단위의 요소들이 전승된 형태에 맞추어 새로운 계송으로 생산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불설(佛說, Buddhavacana)’에 대한 불교도의 유연한 태도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붓다의 입멸 이후 아난과 제자들에 의해서 붓다의 말씀으로 기억되는 것은 붓다에 의해 설해진 말씀, 실제의 원형을 간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빨리어 『대반열반경(Mahāparinibbāna sutta)』에서는 4가지 위대한 교설(四依)을 설명하면서, “만일 그것이 경에 들어가고, 율에서 설해진 것이라면”¹⁰⁾ 불설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훗날 여기에 ‘법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불설의 기준으로 추가된다. 권오민은 이러한 불설의 관념은 근본적으로 불교의 개방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¹¹⁾

불설의 기준을 이처럼 넓게 수용할 것인가, 문자 그대로 좁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불설/비불설’에 관한 논쟁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불설’이라는 용어를 보다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했던 경향이 짙다. 붓다 자신에 의해 말해진 것뿐만 아니라, 붓다의 말씀에 부합하여 잘 말해진 것은 무엇이든 스승, 아라한, 깨달은 자, 붓다의 말씀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9) Roebuck 2011, 231.

10) DN 16, 4: tāni ce sutte otāriyamānāni vinaye sandassiyamānāni.

11) 권오민 2009, 148.

Ⅲ. 한역의 4가지 형태

『법구경』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미 단순하지 않은 과정이 내포되어 있고, 현존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 이 경전의 유포와 전승은 오랜 시간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은 한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구경』이 중국에 와서 한역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초 무렵으로, 10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의 번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법구경』(T4, no. 210)

계송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224년 유기난(維祇難) 등이 번역하고 편집하였다. 빨리어 『담마빠다』와 유사한 26장이 핵심을 이룬다. 어떤 것은 중세 인도어 버전과 가깝고,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13품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39품을 이룬다.

2) 『법구비유경』(T4, no. 211)

290-306년 사이 법거(法炬)와 법립(法立)에 의해 편집되었다. 인도와 중국 문헌의 인연담을 담고 있는 주석과 함께 『법구경』에서 선별한 계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출요경』(T4, no. 212)

383년 축불념(竺佛念)에 의해 번역되었다. 법구에 의해 쓰여졌으나 상실된 주석과 함께 『우다나바르가』의 오래된 버전을 보여준다.

4) 『법집요송경』(T4, no. 213)

산스크리트어 『우다나바르가』로 번역으로, 980-999년 천식재(天息災)에 의해 한역되었다. 주석 없이 계송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유기난의 한역 『법구경』은 빨리어본 『담마빠다』의 26품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앞부분에는 빨리본에 없는 「무상품」·「교학품」·「다문품」·「독신품」·「계신품」·「유념품」·「자인품」·「언어품」(제1-제8품)이 추가되어 있고, 중간에 「이양품」(제33품)이 삽입되어 있으며, 뒷부분에 「니원품」·「생사품」·「도리품」·「길상품」(제36-제39품)이 추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빨리본보다 13품이 많은 39품이며, 계송의 숫자는 750여 송에 이른다.

다.

『법구비유경』은 계송 하나하나가 어떠한 인연에 의해 설해졌는가를 밝히는 이야기들이 함께 실려 있기 때문에, 『법구본말경(法句本末經)』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경은 42품으로 나뉘어 있고, 품의 순서나 모든 면에서 『법구경』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법구경』의 「파계품」이 「호계품」과 「계신품」으로 나뉘어 있고, 「향화품」·「애욕품」에 「유(喻)향화품」·「유(喻)애욕품」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3품이 더 많은 형태이다.

『출요경』은 950여 계송을 담은 방대한 분량이다. 『법구경』 계송의 일부와 주석들이 실려 있는데, 주석의 내용은 글자의 뜻을 분석한 것도 있고, 계송을 설한 인연 이야기를 수록한 것도 있다. 「무방일품」과 「방일품」을 별도로 구분하면 34품이 되고, 이 둘을 합치면 33품이 된다. 「사문품」의 이름이 2번 나오는데, 앞의 것(=제11품)이 출가사문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룬 것이라면, 뒤의 것(=제32품)은 비구가 지켜야 할 규율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¹²⁾ 품들의 이름은 한역 『법구경』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순서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빨리 『담마빠다』가 「쌍요품」으로 시작하고, 한역 『법구경』의 전반부에 실려 있는 것과 달리, 『출요경』에서 「쌍요품」은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

『법집요송경』은 계송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존하는 형태는 천식제에 의해 번역된 4권본이 남아 있다. 앞의 3가지 한역에서 첫 번째 품의 이름이 「무상품」인 것과 달리 「유위품」으로 되어 있다. 모든 유위법의 무상성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주제를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32품의 순서와 이름은 『출요경』과 거의 일치한다. 이들 한역 4본에 나타나는 품들의 이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빨리본 (26품)		법구경 (39품)		법구비유경 (42품)		출요경 (33품)		법집요송경 (32품)	
		1	無常品	1	無常品	1	無常品	1	有爲品
		2	教學品	2	教學品	2	欲品	2	愛欲品
		3	多聞品	3	護戒品	3	愛品	3	食品
		4	篤信品	4	多聞品	4	無放逸品	4	放逸品
		5	破戒品	5	篤信品		放逸品	5	愛樂品

12) 『출요경』은 『우다나바르가』의 번역으로 알려져 있다. 품의 이름을 비교한다면, 12품의 「사문품」에 해당하는 것은 『Śramaṇavarga』이고, 32품의 「사문품」에 해당하는 것은 『Bhikṣuvarga』이다. 뒤의 것은 「비구품」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했을 것이다. 『법집요송경』에서는 「사문품」(제11품)과 「필추품」(제31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6	惟念品	6	戒愼品	5	念品	6	持戒品
		7	慈仁品	7	惟念品	6	戒品	7	善行品
		8	言語品	8	慈仁品	7	學品	8	言語品
1	쌍요품 yamaka	9	雙要品	9	言語品	8	誹謗品	9	業品
2	불방일품 appamāda	10	放逸品	10	雙要品	9	行品	10	正信品
3	십의품 citta	11	心意品	11	放逸品	10	信品	11	沙門品
4	화향품 puppha	12	華香品	12	心意品	11	沙門品	12	正道品
5	우암품 bāla	13	愚闇品	13	華香品	12	道品	13	利養品
6	명철품 paṇḍita	14	名哲品	14	喩華香品	13	利養品	14	怨家品
7	나한품 arahanta	15	羅漢品	15	愚闇品	14	忿怒品	15	憶念品
8	술천품 sahassa	16	述千品	16	明哲品	15	惟念品	16	清淨品
9	악행품 pāpa	17	惡行品	17	羅漢品	16	雜品	17	水喩品
10	도장품 daṇḍa	18	刀杖品	18	述千品	17	水品	18	華喩品
11	노모품 jarā	19	老耄品	19	惡行品	18	華品	19	馬喩品
12	애신품 atta	20	愛身品	20	刀杖品	19	馬喩品	20	瞋恚品
13	세속품 loka	21	世俗品	21	喩老耄品	20	恚品	21	如來品
14	술불품 buddha	22	述佛品	22	愛身品	21	如來品	22	多聞品
15	안녕품 sukha	23	安寧品	23	世俗品	22	聞品	23	己身品
16	호희품 piya	24	好喜品	24	述佛品	23	我品	24	廣說品
17	분노품 kodha	25	忿怒品	25	安寧品	24	廣演品	25	善友品
18	진구품 mala	26	塵垢品	26	好喜品	25	親品	26	圓寂品
19	봉지품 dhammatṭha	27	奉持品	27	忿怒品	26	泥洹品	27	觀察品

20	도행품 magga	28	道行品	28	塵垢品	27	觀品	28	罪障品
21	광연품 pakinnaka	29	廣衍品	29	奉持品	28	惡行品	29	相應品
22	지옥품 niraya	30	地獄品	30	道行品	29	雙要品	30	護心品
23	상유품 nāga	31	象喩品	31	廣衍品	30	樂品	31	苾芻品
24	애욕품 tanhā	32	愛欲品	32	地獄品	31	心意品	32	梵志品
25	사문품 bhikkhu	33	利養品	33	象喩品	32	沙門品		
26	범지품 brāhmaṇa	34	沙門品	34	愛欲品	33	梵志品		
		35	梵志品	35	喩愛欲品				
		36	泥洹品	36	利養品				
		37	生死品	37	沙門品				
		38	道利品	38	梵志品				
		39	吉祥品	39	泥洹品				
				40	生死品				
				41	道利品				
				42	吉祥品				

〈표〉 팔리어 『담마빠다』와 4가지 한역의 비교

4가지 한역본에 대한 학계의 공통된 견해는 39품으로 구성된 상·하 2권의 『법구경』 가운데 26품은 팔리어 『담마빠다』에 대체로 상응하며, 나머지 13품은 주로 설일체유부에서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우다나바르가』에서 역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¹³⁾ 그리고 나카무라 하지메는 “팔리어 『담마빠다』와 한역 『법구경』·『법구비유경』이 첫 번째 계통에 속한다면, 산스크리트어 『다르마빠다』와 『출요경』·『법집요송경』 및 티벳역은 두 번째 계통에 속한다”¹⁴⁾고 밝힌다.

한역 『법구경』은 이후에 범립과 범거에 의해 5권으로 다시 번역되기도 하였고, 법

13) 水野弘元은 팔리어 『담마빠다』를 중심으로 한역 4본과 산스크리트어 『우다나바르가』 및 간다리 『다르마빠다』를 비교하여 대조표(1973, 1974, 1976)를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신국역대장경 법구경』에는 그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파트나본까지 포함한 각 품의 대조표(404-426)를 수록하고 있다.

14) 中村元 1984, 376. 티벳역으로는 계송만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번역(no. 992, no. 5600)과 그 주석서(no. 5601)가 북경판에 실려 있다. 『우다나바르가』와 동일하게 33장 9백여 송으로 되어 있고, 내용도 팔리어 『담마빠다』보다는 『우다나바르가』에 가깝다고 한다.

렵은 따로 1백여 계송의 작은 경전을 만들었는데, 영가(永嘉) 말년의 난을 만나 대부분 산실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⁵⁾ 또한 중국에서는 『불설법구경(佛說法句經)』¹⁶⁾이라는 이름의 위경이 만들어질 정도로 『법구경』의 영향력은 후대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한역 『법구경』 서문을 통한 이해

부과마다 다르게 전승되던 불교문헌이 중국에 전래되면서 한역되는 과정은 실로 역동적인 불교사의 한 장면이고, 역동적인 만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가운데 『법구경』의 전래와 한역의 과정은 그것의 서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상·하 2권 형태의 『법구경』의 서문은 책의 첫머리가 아니라 1권이 끝난 후에 실려 있다.

이 서문의 작자에 대하여 『출삼장기집』은 작자미상으로 밝히고 있지만,¹⁷⁾ 오나라 때 지겸(支謙)이 썼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¹⁸⁾ 지겸은 조부인 법도(法度)가 한(漢) 영제(靈帝) 시절에 수백 명을 거느리고 귀화했던 월지국의 사람으로, 13세에 호서(胡書)를 배우고 6개 나라의 말에 능통하였으며 학식이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황무 2년(223년)부터 건흥 2년(253년)까지 그가 옛것을 교정하고 새로 번역한 것이 모두 129부 152권이나 되었다.¹⁹⁾

15) 『고승전』(T. 50, 326bc). 이 기록은 범거와 범립이 번역한 『법구비유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이 맞다면, 현존하는 4권본과 달리 5권본도 있었으며, 산실된 1백여 계송의 작은 분량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 『불설법구경』(T. 85, 1432b-1435b). 『불설법구경』은 원래 2권본이었으나, 상권은 산실되고 하권으로 된 1권본이 많이 유포되었던 듯하다. 이름은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다. 돈황에서 주석서와 함께 발견되어 신수대장경 의사부(疑似部)에 14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田中良昭(1974), 伊吹敦(2004) 참조.

17) 『출삼장기집』(T. 55, 47a): 法句經序第十三 未詳作者.

18) 한명숙(2012, 39)은 『법구경』 서문의 원문에 보이는 謙을 사람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서문의 저자를 지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初謙其爲辭不雅”(T. 4, 566c)를 “처음에 내(=지겸)가 그 말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하자”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출삼장기집』에 실린 『법구경』 서문의 원문에는 “僕初嫌其辭不雅”(T. 55, 50a)라고 하여 謙으로 되어 있다. 서문의 저자가 지겸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원문의 謙을 근거로 하여 서문의 저자를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19) 『출삼장기집』, 「지겸전」(T. 55, 97b); 『고금역경도기』, 「지겸전」(T. 55, 351b). 鎌田茂雄(1985, 48)은 호어와 한어 모두에 능통했던 지겸이 『법구경』을 역출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전의 한역 『법구경』을 개정 및 증보하여 현존하는 한역 『법구경』을 펴낸 사람도 지겸으로 보고 있다. 『출삼장기집』 「안현전」 말미에도 유기난이

서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법구경』이라는 경전의 이름이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시구라는 것, 그 가르침의 핵심을 가려 뽑아 별도의 부(部)를 만들었는데, 적합한 이름이 없어 ‘법구(法句)’라 하였다는 사실을 전한다. 그리고 번역에 있어서 인도와 중국 말이 서로 달라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전한다. 그 가운데 『법구경』을 번역하던 당시에도 중국에 전해진 『법구경』의 형태가 단일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 담발게(曇鉢偈, Dhammapada-gathā)는 모든 경전의 핵심이라는 의미이다. ‘담(曇)’이라는 것은 ‘진리[法]’를 말하고, ‘발(鉢)’이라는 것은 ‘말씀[句]’을 말한다. 그런데 『법구경』에는 별도로 여러 개의 부(部)가 있는데, 9백 계송 혹은 7백 계송 그리고 5백 계송으로 된 것도 있다. ‘계송[偈]’이란 매듭지어 말하는 시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어떤 사건을 보시고 지으신 것이므로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각각에는 근본과 지말이 있어서 여러 경전에 흩어져 있다.

[B] [부처님의 말씀인] 무릇 12부경(部經)에 그 핵심을 총괄하고, 따로 여러 부의 [경전을] 만들었으니, 4부 아함(阿含)이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난이 전한 것으로, 권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어디에] 계셨다”라고 말한 후에 그 설법이 펼쳐진다. 이후에 5부파에 소속된 사문들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여러 경전 중에 4구(句) 혹은 6구(句)로 된 계송을 가려 뽑아서 그 뜻을 검토하고 조목(條目)을 나누어 품(品)을 만들었는데, 12부경 가운데 참고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적당한 이름이 없으므로 ‘법구(法句)’라고 하였다. 여러 경전을 진리의 말씀이라 하므로, ‘법구’란 진리의 말씀에서 유래한 말이다. 최근에 갈씨(葛氏)가 7백 계송으로 된 것을 전하였는데, 계송의 의미가 매우 심오하여 번역하는 이가 그것을 역출함에 자못 혼란스럽게 되었다.

[C] 처음 것은 유기난(維祇難)이 인도를 떠나 황무 3년(224년)에 무창(武昌)에 왔고, 나는 그로부터 이 5백 계송본을 받아서, 그와 동행했던 축장염(竺將焰)에게 번역할 것을 청하였다. 축장염은 인도말은 잘 하였으나 아직 한나라 말은 완전하게 깨치지 못하여, 그가 전하는 말은 범어 [그대로] 음사하거나 의미에 맞는 음으로 나타내어 질박한 직역에 가까

『법구경』의 호본을 가지고 왔고, 지점이 청하여 역출하게 되었으며, 축장염이 전역한 것을 지점이 한문으로 필사하였다(T. 55, 9a)고 기록한다.

왔다. 처음에 [내가] 그 말이 세련되지 못함을 싫어하자, 유기난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의미에 의지하되 꾸미지 말라, 그 가르침을 취하되 장엄하지 말라.’고 하시었다. 경전을 전역하는 사람은 알기 쉽도록 하되 그 의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D] 예전에 이것(=5백 계송본)을 전역할 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있었다. 마침 축장염이 왔으므로, 다시 그에게 지문을 구하였다. 이 계송들을 받으니, 다시 13품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옛것을 교정하였으니 증보된 것이 있고, 차례로 그 품목을 합치니 1부 39편, 대략 계송은 752장이 되었다. 원하건대, 보충하고 늘린 것이 있어 들음[聞]을 함께 넓혀가기를 바란다.²⁰⁾

인용문의 [A]에서 『법구경』이 전래되던 당시에 이미 5백 계송, 7백 계송, 9백 계송의 서로 다른 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본이 산스크리트어였는지, 간다리어였는지, 카로슈티어였는지 혹은 그 밖의 언어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범어(梵語)’ 또는 ‘호어(胡語)’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법구경』이 중국에 전래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B]에 보이듯이, 그 형태도 어떤 것은 4구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6구로 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단일한 형태의 계송이 아니었다. 사실 붓다의 입멸 이후 부파 분열의 과정을 겪으면서 각 부파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전승에 따라 다르게 간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문에 보이는 ‘5부파에 소속된 사문’이란 담무덕부(曇無德部) · 살바다부(薩婆多部) · 미사색부(彌沙塞部) · 가섭유부(迦葉遺部) · 마하승기부(摩訶僧祇部) 등을 말한다.²¹⁾

20) 『법구경』(T. 4, 566bc): 曇鉢偈者 眾經之要義 曇之言法 鉢者句也 而法句經別有數部 有九百偈 或七百偈及五百偈 偈者結語 猶詩頌也 是佛見事而作 非一時言 各有本末 布在諸經 … 중략 … 凡十二部經 總括其要 別爲數部 四部阿含 佛去世後阿難所傳 卷無大小 皆稱聞如是 處佛所在 究暢其說 是後五部沙門各自鈔眾經中 四句六句之偈 比次其義條別爲品 於十二部經靡不斟酌 無所適名 故曰法句 諸經爲法言 法句者 由法言也 近世葛氏傳七百偈 偈義致深 譯人出之頗使其渾 … 중략 … 始者維祇難 出自天竺 以黃武三年來適武昌 僕從受此五百偈本 請其同道竺將焰爲譯 將焰雖善天竺語 未備曉漢 其所傳言 或得梵語 或以義出音*迎質真樸 初*謙其爲辭不雅 維祇難曰 佛言 依其義不用飾 取其法不以嚴 其傳經者令易曉 勿失厥義 是則爲善 … 중략 … 昔傳此時 有所不解 會將焰來 更從諮問 受此偈輩 復得十三品 并校往古 有所增定 第其品目合爲一部三十九篇 大凡偈七百五十二章 庶有補益 共廣*問焉 『출삼장기집』에 수록된 『법구경』 서문의 원문과 비교하여 *‘迎’은 ‘近’으로, *‘謙’은 ‘嫌’으로, *‘問’은 ‘聞’으로 교정하여 번역하였다.

21) 한명숙 2012, 35-36. 『신국역대장경 법구경』에서는 5부파의 이름을 “설일체유부 · 화지부 · 범장부 · 음광부

아소카 왕 무렵부터 분열되기 시작한 불교교단이 18부 또는 20부의 부파로 나뉘게 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부파마다 경전이나 계율을 다르게 해석한 점도 있지만, 넓은 지역으로 나뉘어 경전을 그 지방의 언어로 옮기면서 생겨난 차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전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의 핵심적 가르침만을 가려 뽑았다는 것에 『법구경』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5부파는 제각각 자신들의 전승과 교학적 입장에서 계송들을 선별하고 검토하여 유사한 것끼리 모아 각각의 품들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선별한 계송은 유사한 붓다의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그 형태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계송의 숫자도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7백 계송으로 된 것을 갈씨(葛氏)라는 자가 전하였지만, 그 뜻을 번역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웠던 사정을 전해준다. 갈씨가 누구를 말하는지, 7백 계송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는지, 더 이상의 설명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 후 [C]에서 보듯이, 서문의 저자는 유기난이 가져온 5백 계송을 받게 된다. 유기난은 아직 중국 말을 익히지 못하였으므로 마침 함께 온 축장염에게 번역해줄 것을 청하였는데,²²⁾ 그 역시 중국말에 밝지 않아서 그의 번역은 우아한 문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의 번역은 때로 범어 그대로를 음사하거나, 뜻에 맞는 음으로 전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초기에 불교 경전을 번역한 사람 가운데 인도는 물론 중앙아시아 출신도 많았다. 안식, 월지, 강거, 구자 등의 여러 나라에 불교가 번영하여 불교 경전이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바로 그것에서 한역된 것도 있었음을 말해준다.²³⁾ 출신지를 성으로 삼던 관습을 유추해보면, 그 이름을 통해 축장염은 인도 출신, 지겸은 월지국 출신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경우 범어 또는 호어로 된 인도어 버전에서 한역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D]에서는 유기난이 가져온 5백 계송을 번역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나, 때마침 축장염이 와서 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는 내용을 전한다. 그 후 새롭게 13품을 얻게 되고, 250여 송을 추가하여 모두 39편 752장으로 증보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축장염이 유기난과 동행한 이후에 다시 와서 그에게 자문을 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 대중부'(94-95)로 밝힌다. 설일체유부는 '살바다부' · 화지부는 '미사색부' · 범장부는 '담무덕부' · 음광부는 '가섭유부' · 대중부는 '마하승기부'에 각각 대응한다. 이것은 아쇼카왕 이전의 어느 시점에 5부파가 병존했다고 말하는 袴谷憲昭(2021, 40)의 견해와도 일치하다. 그에 따르면, 5부파의 이름은 대중부 · 분별설부 · 범장부 · 화지부 · 설일체유부 등이다.

22) 『고승전』, 「유기난전」(T. 50, 326bc)에는 축장염의 이름을 '축률염(竺律炎)'으로 전한다.

23) 水野弘元 1990, 133.

유기난과 동행하였을 때 자문을 구했던 것을 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²⁴⁾ 더구나 13품의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하지만, 미즈노 고젠은 빨리어 계통의 26품(5백 계송)을 기본으로 하여, 현존하는 한역 『법구경』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지금으로부터 1750여 년 전 39품 752송의 한역 『법구경』이 나올 때, 이것은 당시에 존재하던 5백 계, 7백 계, 9백 계 3종류의 『법구경』에서 역경된 것으로, 중심이 되는 26품은 빨리어 『법구경』 계통(5백 계)에서 역출된 것이다. 여기에 설일체유부의 『법구경』인 9백 계에서 보충하여 번역하고, 앞서 존재했던 7백 계송의 일부분을 덧붙여서 현재의 한역 『법구경』이 된 것이다.”²⁵⁾

미즈노 고젠이 말한 대로, 한역 『법구경』은 그 중심이 되는 빨리어본에서 역출되었을 가능성이 물론 존재한다. 그 과정에서 『법구경』과 같이 계송만으로 이루어진 『법집요송경』, 산문주석을 포함한 『법구비유경』 및 『출요경』의 한역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장 원형적인 것은 빨리어 『법구경』이고, 그 다음의 것은 파트나본이 된다. 간다리본도 그것에 가깝고, 『마하바스투』에 인용된 것은 그 다음이며, 마지막에 성립한 것이 설일체유부의 『우다나바르가』이다.²⁶⁾

그런데 과연 빨리어본 26품을 『법구경』의 원형으로 삼고, 더구나 각각의 사본에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그 자신도 밝히고 있듯이, 파트나본의 경우는 쓰여진 언어가 빨리어도 아니고 불교 범어도 아닌 중간 형태, 즉 빨리어에 가까운 미지의 속어이며, 원래는 500여 송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다리본의 경우는 상당히 붕괴가 심한 속어로 섞여져 있고, 그 원본은 빨리어 『법구경』과 마찬가지로 26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송의 숫자는 빨리어본보다 120개 정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5백여 송으로 이루어진 파트나본이나 간다리본도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5백 계송의 출처를 빨리어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살로몬(Salomon)의 연구는 주목할만한 관점을 제시하

24) 한글대장경 『법구경』 서문에서는 “마침 장엄이 왔기에 다시 그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 계송들을 받아 다시 13품을 더하고”라고 번역하였고, 『출삼장기집』에 실린 『법구경』 서문에서는 “때마침 축장엄이 찾아와 그에게 다시 자문을 구하여 이 계송들을 얻고, 또 13품을 얻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축장엄이 다시 찾아왔다는 분명한 기사를 볼 수 없는 이상, 13품의 출처를 과연 축장엄과 연관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25) 水野弘元 1990, 91.

26) 水野弘元 1990, 96.

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는 불교 텍스트의 다양한 형태들은 확장(expansion), 편집(compilation), 축약(abbreviation)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최초의 텍스트 구성단위들이 포함되면 텍스트 전체를 충분히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특히 그는 유럽과 인도에서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만한 명확한 차이는 고정성/안정성 vs 유연성/다양성에 대한 관념과 관련될 것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유럽의 문화는 어떤 것을 고정하고, 표준화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 혹은 적어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으로 텍스트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학자들에 의한 편집과 문헌 작업의 세기는 텍스트의 ‘진실한’, ‘정확한’, ‘원형의’ 버전을 확립하는 것을 지향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인도 문헌에 적용할 때 만족스러운 결과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종종 가져온다.”²⁷⁾

따라서 그는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 같은 문헌의 비판적 텍스트를 확정하려는 시도는 종종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던 이 텍스트의 확정적인 버전을 산출하게 된다고 말한다. 인도와 특히 불교 텍스트들은 보다 유연한 특징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다른 버전들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권위 있는 버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담마빠다』, 『다르마빠다』, 『우다나바르가』 역시 몇 개의 주요 버전들과 몇 개의 다른 단편들로 현존하는데, 이들은 내용이나 순서에서 전반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텍스트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법구경』이 전래되었을 때 중국에서도 『법구경』과 『출요경』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출요경』의 역경에 참여하고 그 서문을 쓴 승예(僧叡)는 1천 개의 장(=계송)을 모아 33품으로 만들었고 이름을 『법구록(法句錄)]이라 하였으며, 그 본기(本紀, 붓다의 전기)에 관련된 것의 이름을 『출요경』이라 한다고 적고 있다. 연이어 카슈미라의 사문 승가발징(僧伽跋澄)이 전진(前秦)의 건원 19년(383년)에 파미르고원을 넘어 장안에 도착하였고, 때마침 중국은 5호16국 시대의 난세이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아직 중국에 “『법구경』이 온전하지 않고, 『출요경』이 갖춰지지 않은 것”²⁸⁾을 유감스럽게 여기던 터에, 태위(太尉) 조민(姚昶)의 요망으로 이 경을 번역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27) Salomon 2020, 2.

28) 『출요경』(T. 4, 609c): 恨法句之不全 出曜之未具.

『출요경』은 범어 혹은 호어로 쓰여진 『우다나바르가』의 번역으로 간주되고 있거나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법구경』에 나오는 계송들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다. 그 때문에 동일 계통의 문헌으로 간주되지만, 『법구경』의 계송과 붓다의 전기를 다루는 『출요경』의 차이는 분명하다.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계통의 텍스트로 간주되는 상황에는 불교 텍스트 자체가 지니는 유연한 특징, 만족스럽게 그 어떤 원형의 형태를 확정지을 수 없는 인도 텍스트의 고유한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법구경』의 짧은 계송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통되기 쉬운 형태이고, 그 내용은 단순하고 소박한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짧고 간결한 계송은 유통되기 쉽지만, 다의적 해석 또한 가능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 가장 오래된 시기에 만들어진 계송과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계송이 붓다의 말씀으로 함께 묶일 수 있었던 것도 『법구경』이 여러 경전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을 가려 뽑은 선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구경』의 원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언어의 다양한 버전들을 모두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또 다른 원본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파분열로 인한 각기 다른 전승 속에서 『법구경』이 다른 형태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이때 특정한 형태를 그것의 원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경전의 성격 자체가 붓다의 말씀을 가려 뽑은 선집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전의 계송은 그와 관련된 인연담의 이야기로 확장되기도 하고, 인연담의 이야기가 계송으로 수렴되기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왔을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법구경』의 형태는 불교사의 오랜 역사가 빚어낸 퇴적층과도 같다. 인도어 버전의 다양한 형태와 한역 과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한다면, 그 퇴적층의 광범위함과 다층적 구조를 보다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약호

DN : *The Dīgha Nikāya*, ed. Rhys Davids & Carpenter, 1966, London: PTS.

1차 자료

- 『고금역경도기』(T. 55)
- 『고승전』(T. 50)
- 『법구경』(T. 4)
- 『법구비유경』(T. 4)
- 『법집요송경』(T. 4)
- 『불설법구경』(T. 85)
- 『출삼장기집』(T. 55)
- 『출요경』(T. 4)

2차 자료

- 권오민. 2009. 「불설과 비불설」, 『문학 사학 철학』 17: 86-153.
- 김서리 역. 2013. 『담마빠다』. 서울: 소명출판.
- 일아 역. 2014. 『빠알리 원전 번역 담마빠다』. 서울: 불광출판사.
- 전재성 역. 2008. 『법구경-담마과다』.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한명숙 역. 2012. 『법구경』. 서울: 흥익출판사.
- 藤田宏達 外, 권오민 역. 1992. 『초기 · 부파불교의 역사』. 서울: 민족사.
- 引田弘道 譯. 2000. 『新國譯大藏經 法句經』. 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 鎌田茂雄, 정순일 역. 1985. 『중국불교사』. 서울: 경서원.
- 袴谷憲昭, 이자랑 역. 2021. 『불교단사론』. 서울: 씨아이알.
- 水野弘元. 1990. 『經典-その成立と展開』. 東京: 佼成出版社.
- _____. 1973. 「法句經對照表」, 『佛敎研究』 3: 144-199.
- _____. 1974. 「法句經對照表」(2), 『佛敎研究』 4: 140-206
- _____. 1976. 「法句經對照表」(3), 『佛敎研究』 5: 310-382.

- 伊吹敦. 2004. 「法句經の思想と歴史的意義」, 『東洋學論叢』 29: 1-98.
- 田中良昭. 1974. 「偽作の法句經と疏の異本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45: 122-129.
- 中村元. 1984. 『眞理のことは 感興のことは』. 東京: 岩波書店.
- Bernhard, Franz. 1965. *Udānavarga*, Sanskrittexte aus den Turfanfunden¹⁰.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Carter & Palihawadana. 2000. *The Dhammapad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lupahana, D. J. 1986. *A path of righteousness: Dhammapada*.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Müller, Max. 1924. *The Dhammapada*, SBE Vol. 10. Oxford: Clarendon Press.
- Norman, K. R. 1997. *The Word of the Doctrine (Dhammapada)*. Oxford: PTS.
- Hinüber, Oskar von & Norman, K. R. 1994(repr. 1995). *The Dhammapada*. Oxford: PTS.
- Radhakrishnan. 1950. *The Dhammapad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Roebuck, Valerie J. 2010. *The Dhammapada*. London: Penguin Classic.
- _____. 2011. "Dhammapada, Dharmapada and Udānavarga: The Many Lives of a Buddhist Text", *Religions of South Asia*. <https://doi.org/10.1558/rosa.v6i2.225> (검색일자: 2021.9.10.)
- Salomon, Richard. 2020. "Expansion, compilation, abbreviation: some thoughts on the construction of Buddhist Texts",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https://doi.org/10.1007/s10781-020-09456-9> (검색일자: 2021.9.10.)

The Complexity of Establishment and Transmission in the *Faju jing* (法句經)

Seongock KIM

(Assistant Professor, 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

The *Faju jing* (法句經)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Buddhist scriptures. Since the Buddha's teachings have been selected and assimilated, it is clear that this scripture contains the core essence of Buddhism. However, when we go into the details, we realize that it is not as simple as was thought.

Above all, we are confronted with the fact that among the various manuscripts found in India and Central Asia, the original *Faju jing* cannot be ascertained. This sūtra was established during the long history of Buddhism and was disseminated in various languages across the wide area. In addition, the internal history of Buddhism, defined by division into sub-schools, made it more complicated.

From the Pāli *Dhammapada*, Sanskrit *Dharmapada*, Gāndārī *Dharmapada*, Patna *Dharmapada* to the *Udānavarga*, the various forms of the Indian version of the *Faju jing* are very complex. In the case of *Faju piyu jing* (法句譬喻經), *Chuyao jing* (出曜經), and *Faju yaosong jing* (法集要頌經), which are considered to be of the same lineage as the *Faju jing* in Chinese translations, there are also complications. It does not seem to be easy to reveal the source of the first 500 verses and the newly acquired 13 chapters (with 250 verses) in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is sūtra, which can be found in the preface of the *Faju jing*. Moreover, it seems almost impossible to determine 'the earliest' and 'the most

original' form.

The existing form of the *Faju jing* must have gone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other verses, of the same kind, were sometimes added and sometimes omit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transmitting the sūtra. During the process, it seems that the flexible attitude of Buddhists toward 'Buddhavacana' acts as a major factor. The major versions and fragments of *Dhammapada*, *Dharmapada*, and *Udānavarga* have been considered to be of the same lineage, despite the obvious differences in the arrangement of verses and chapters. In this regar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ndian and Buddhist texts, which do not allow for the original form to be determined, should be fully considered.

Keywords : *Faju jing*, *Dhammapada*, *Dharmapada*, *Udānavarga*, Buddhavacana

2021년	9월 11일	투고
2021년	10월 5일	심사완료
2021년	10월 6일	게재확정